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걷잡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7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걷잡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걷잡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걷잡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것잡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걷잡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것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걷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것잡다
  19세기20세기
- 걷잡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것잡-, 걷잡-

걷잡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것잡다'의 옛말인 '것잡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것잡-'은 거두다의 준말 '걷-'과 움키고 놓지 않다를 뜻하는 '잡-'이 결합한 것이다.

표기 방식과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종성 'ㄷ'을 'ㅅ'으로 표기하는 경향에 따라 '것잡-'으로 표기되다가,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걷잡-'으로 표기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걷잡다

전체 용례 7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것잡-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것잡-

출처 미상 금향정기 25ㄱ

용례 01

문헌 용례

것잡을 길이 업는지라.

현대어 풀이

걷잡을 길이 없는지라.

출처 1880 한불자전 149

용례 02

문헌 용례

것잡다 [壓].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0년경 성경직해 6:25ㄱ

용례 03

문헌 용례

잡념이 심히 것잡지 못ᄒᆞ야.

현대어 풀이

잡념이 심히 걷잡지 못하여.

20세기 것잡-, 걷잡-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것잡-, 걷잡-

출처 1908 보감:273-274

용례 04

문헌 용례

병해(病害)는 것잡기도 더딕고.

현대어 풀이

병해는 걷잡기도 더디고.

출처 1908 치악산 상104

용례 05

문헌 용례

본릐 골이 ᄂᆞ면 것잡을 수가 업ᄂᆞᆫ 홍참의라.

현대어 풀이

본래 골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홍 참의라.

출처 1913 비파성 127

용례 06

문헌 용례

것잡을 슈 업시 나오난 눈물.

현대어 풀이

걷잡을 수 없이 나오는 눈물.

출처 1930 동아일보 9월 4일 5면

용례 07

문헌 용례

입맛을 잃고 잠을 잃고 감정을 걷잡을 수 없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걷잡다의 보충 설명

‘걷잡다’는 동사 ‘걷-’과 동사 ‘잡-’이 결합한 형태로 ‘오르내리다’, ‘잡쥐다’, ‘검붉다’ 등에서도 볼 수 있는 단어 형성 방식이다. ‘걷-’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거더’와 ‘잡-’이 결합한 ‘걷어잡다’도 있지만 걷어 올려서 잡다, 정신을 수습하여 마음을 도사려 먹다의 뜻으로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걷잡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민수 편 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 백문식 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걷잡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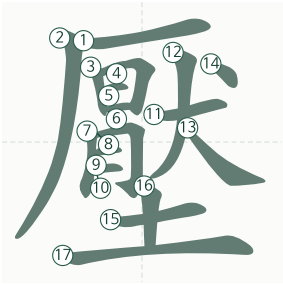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壓

뜻·음 누를 압

총 17획 · 부수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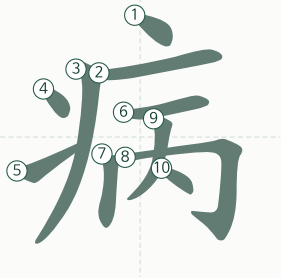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壓/

病

뜻·음 병 병

총 10획 · 부수 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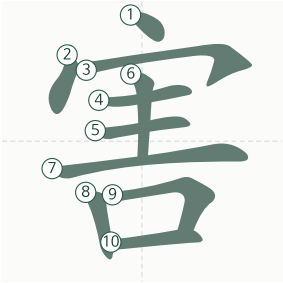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病/

害

뜻·음 해할 해

총 10획 · 부수 宀





hanja.wordrow.kr/한자/害/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